

사회

“복수담임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학교폭력 종합대책 학생인권조례와도 충돌... 일선학교 혼란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광주지역 교사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일부 대책의 경우 현실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학교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적으로 두명의 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는 현재 시행 중인 대안 담임·부담임의 역할 분담 등 세부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겨져 교사간 '책임 떠넘기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학교에 제정권을 맡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규칙과 이미 발표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의 골자는 ▲학교폭력 은폐 학교장·교사

의 경우 '중대범죄'로 처벌 ▲복수(부담임)담임제 도입 ▲학생부에 가해학생 조치내용 기록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등이다.

폭력그림인 일선들을 관찰 경찰서장 지휘 아래 감시·적발하는 '일선경보제'도 포함됐다.

광주 교사들은 우선 중학교 한 학급을 정·부담임 2명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A고교 학생부장(54)은 "현재 담임도 학급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권한과 책임도 주어지지 않은 부담임을 지경하면 교사들간 책임 소재를 놓고 반목과 불협화음이 일 것"이라며 "또 이미 시행중인 정·부담임제가 겹칠고 있는 데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학교의 한 학생부장(40)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면 한 학급(35명)을 2명씩 오후 7~8시까지 상담해도 두달이 걸린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부에 학교 폭력 조치 이력을 기재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 학생의 장애에 두고 두고 영향을 미칠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선경보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일선지표'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해 일선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선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선경보'를 가동하고 경보가 가동되면 학교 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전문가 등이 개입한다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대책은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대책에는 학생생활규칙을 8월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학생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반입 또는 사용금지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경우 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벌러덩 지난 5일 밤 11시에 화순군 화순읍 너릿재터널에서 화순방면으로 향하던 무쏘 승용차가 전복됐다. 이날 사고로 한때 차량운행이 지체되는 등 이곳을 오가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책이 절실한 가운데 6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평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하교를 돕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학간 후에도 후배 괴롭혀

광산경찰, 1년간 폭행·갈취 중학생 2명 입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온 중학생 '일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6일 광주시 광산구 모 중학교 3학년 박모(16)군과 김모(16)군을 갈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A(15)군 등 학교 후배 15명을 상대로 모두 45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 등은 돈을 상납하지 않은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키 180cm의 건장한 신체조건으로 학교에서 숙청 '짱'으로 불리던 이들은 "돈을 빌려 달라"며

1000원~1만원씩을 빼앗았으며 자신들의 생일에는 20만원을 모아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군은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간 이후에도 김군과 함께 예전 학교 후배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갈취한 돈은 PC방을 가거나 군것질을 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군 등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없고 피해 학생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학교가 방학을 끝내고 개학한 만큼 순찰 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폭력 미온 교사 첫 입건

부모·학생으로부터 5차례 조치 요구 대응 안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서 과징이 예상된다.

서울 양천경찰은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강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 C(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C양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B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끝에 작년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양은 당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남겼다.

A씨는 C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대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왔다고 경찰에게 과립함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

"버텼었다" 후배 폭행 여고생 7명 입건

순창경찰은 6일 버텼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순창군 순창읍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후배

인 A(15)양 등 5명을 불러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1년간 노래방과 초등학교 운동장, PC방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A양 등 9명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교복 치마가 너무 짧고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나원침 (8496) 김중두



노태우 전 대통령 병세 호전돼 퇴원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병세가 호전돼 6일 퇴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병세가 호전돼 오후 3시에 퇴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동휘 비서관은 "기관지에 있던 염증이 없어지고 입원하는 동안 부착하고 있던 인공호흡기도 때 자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원은 지난해 9월 28일 고열과 천식 등의 증세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4개월여 만이다. 그는 입원 이후 폐기능 악화로 수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엔 의료진이 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2002년 미국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와 검진을 받아 왔다.

/연황뉴스

한자복 입고 농기계 대리점서 절도

○해남경찰은 6일 농기계 대리점에 침입, 7만 6000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48)씨를 구속.

○지난 2일 새벽 해남읍 모 농기계 대리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소형 금고에서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환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르다도 난경보시스템 작동으로 출동한 용역 경비업체와 경찰의 공조로 검거.

○임씨는 1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비록 출된 돈은 적지만 범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격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검찰사이트 위조 5억 금융사기

전남경찰, 3명 구속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인터넷 검찰청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하게 한 뒤 금융정보를 빼돌려 거액을 인출한 한모(2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복제 사이트를 만들어 지난해 11월30일 한평에 거주하는 이모(50)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현금카드를 만들어 계좌에서 78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1차례에 걸쳐 5억1500여만원을

가토한 혐의로.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정보가 노출됐던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인터넷 전화의 접속 주소가 중국인 점을 토대로 전화금융사기에 국내 조직과 외국 조직이 연계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최근까지 10억원 정도를 거래했다는 진술과 계좌번호가 적힌 수첩 등을 확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400여만원과 현금카드 24매, 휴대전화 6대 등을 압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게임중독에 빠져...

"직장 생활 힘들다" 20대 목 매 자살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빌라 3층에서 A(24)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나주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경찰에서 "지난달 15일 집에 다녀간 이후 최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와 봤는데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A씨는 게임중독 등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수차례 직장을 옮겨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원룸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어머니에게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3학년입학 / 2년재학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3월 2일